

· 타문화권 환자 진료(카자흐스탄편)

KOICA 9기 국제협력의사 이 완
현재 서울 시립 병원 근무

카자흐스탄에서는 감사의 표현으로 보통 초콜릿과 술(포도주, 보드카, 샴페인이나 꼬냑 등)을 선물한다. 또한 차(Tea)문화가 발달되어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고 차를 마실 때 꼭 쿠키종류나 초콜릿을 함께 먹는다. 추위를 이기기 위한 열량 보충과 혈액순환을 위함일 것이다. 옛 소비에트 연방시절에는 치과의사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치과의사들이 돈이 되지 않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 어린아이들이 구강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질 기회가 줄어들었다.

이미 질병에 이환이 되어 병원에 찾는 것보다는 예방을 하여 평생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라는 옛 속담도 있듯이 어렸을 때 좋은 구강건강관리 습관을 들이게 하기위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일단 내가 외국인이라는 것이 관심을 가지게 하는 효과가 있었고 치아에 해로운 음식과 이로운 음식을 설명하며 잘못된 식습관에 대해 인지하게 하였으며 칫솔과 치약을 선물로 주면서 올바른 잇솔질에 관해 간단한 실습을 그 자리에서 실시하여 나중에 반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한다.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고아원, 교회, 위그르민족 자치마을 등 다른

장소에서도 구강보건교육을 하여 좋은 반응이 얻었다.

치과질환과 치과치료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카자흐스탄에서 내가 접해보지 못한 치료방법이 있었다. 잇몸질환으로 내원한 환자가 '잇몸에 주사를 놔 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다. 처음에는 아파서 마취를 해달라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항생제 주사를 말하는 것이었다. 잇몸질환은 치석의 세균에 의한 것으로 항생제를 맞으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기에 스켈링을 권하면 대부분은 스켈링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치료받기를 거부한다. 어떤 환자는 스켈링을 치아미백의 하나로 생각하고 내원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어금니 신경치료의 경우 내원횟수가 많아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카자흐스탄 치과의사들은 1-2회의 내원으로 신경치료를 마무리한다. 내원횟수가 많은 나로서는 실력 없는 의사로 의심을 받기도 했다. 카자흐스탄 치과의사들은 치근에 있는 염증 치수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약으로 치수를 진정시키고 치료를 마무리 하는 것 같다. 치료에 사용된 약의 재료가 굉장히 단단하여 제거가 쉽지 않아 염증이 재발되면 발치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 치과선배님께 문의해봤더니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렇게 진료했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카자흐스탄의 치과대학의 교육내용이 근대화되지 않아서 일까?

치과는 모두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그래서 치과에서는 통증을 줄이는 술식이 개발되고 마취를 잘해서 환자에게 공포를 덜 느끼게 하려고 노력한다.

하루는 치료시작부터 겁을 잔뜩 먹은 환자가 치료를 마치고 나서는 굉장히 고맙다고 이야기 하면서 '황금손'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주었다. 치료가 잘되었는지 보다 아프지 않게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 더 중요했나보다. 사랑니 발치를 위해서 내원한 환자는 현지 치과의원에서 마취를 하지 않고 발치하여 통증 때문에 입원을 2일이나 했던 기억이 있어 사랑을 안 아프게 발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원했다.

현지의사가 진료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침윤마취만 해야 할 경우도 무조건 전달마취를 한 경우를 보았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온 유학과 현지치과의사들은 임플란트나 교정치료 등 현대화 된 치료도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카자흐스탄 현지 치과의사들은 내가 공부한 치료개념과 달라 토론을 하고 싶었지만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 조심스러웠다.

치아에서 기인한 농양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배농을 위해 잇몸에 마취를 하는 순간 환자가 혼수상태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음식섭취가 제대로 되질 않아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치료를 시작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미리 환자의 몸 상태를 점검하지 못한 경우였다. 카자흐스탄은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개발도상국이다. 극소수의 부유층이 있고 대부분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전신적인 몸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염두해야겠다.

자신이 질환에 걸린 지도 모르는 결핵이나 간염, 성병에 걸린 환자도 많으므로 관혈적 시술을 하는 치과의사로서는 감염에 특히 신경을 써야한다.

도시 밖으로 갈수록 더욱 심하며 의료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도시 외곽으로 정기적인 순회 진료를 나가려고 했으나 제도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하질 못했다.

치과의사는 흔히 치아를 치료하는 의사라고 생각한다. 우리 치과의사 내부적으로도 치아를 가진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자고 이야기한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을 진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진료한다는 생각이 우선되어야겠다.